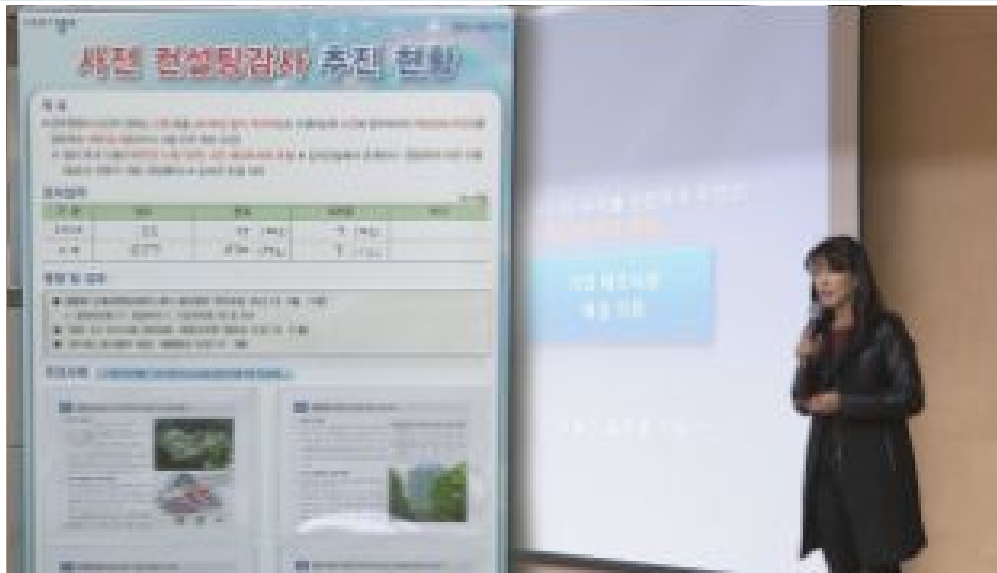


사전 컨설팅감사, 공공 넘어 기업까지 확대



[앵커멘트] 감사의 패러다임을 바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도록 돕는 경기도의 '사전 컨설팅감사', 그동안 공공영역을 대상으로 추진했는데요. 앞으로는 31개 시·군을 돌며 직접 기업들을 만납니다.

[리포트]

3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광주시의 한 식품제조 공장

농지와 산지를 목적과 달리 도로 등으로 쓰다가 광주시로부터 원상복구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산지는 원래대로 되돌려놓았지만 농지를 복구할 경우 차가 들어오는 길목이 막혀버리는 상황

해결할 근거 규정이 없어 애를 먹다가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주변 피해가 없기 때문에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이끌어내 공장 문을 닫을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됐습니다.

[인터뷰] 김영현 / 식품제조업체 공장장

"기업들이 법규로 인해서 제한을 받던 부분들의 해소 방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불명확한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업무에 애를 먹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 수 있도록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주는 경기도의 '사전 컨설팅감사'

2014년에 도입돼 2조 원이 넘는 투자효과와 3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둔 제도로 앞으로 공공영역을 넘어 기업까지 확대됩니다.

오는 4월부터 31개 시·군 청사에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기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에 나섭니다.

개발행위와 건축, 각종 인허가 등에서 발생하는 기업 애로사항을 도와 시·군이 직접 현장에서 듣고 해결방안을 찾아줄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기용 / 제조업체 대표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중소기업들이 타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중소기업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터뷰] 한인교 /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

"저희한테 문의가 온다면 저희가 최대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줌으로써 진짜 경기도가 기업 하기 좋은 경기도, 소극적 행정이 모든 게 다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부숴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and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영상취재 : 류민호, 영상편집 : 김정환>

©경기GTV | 최창순 cssogm@hanmail.net

입력일 : 2018.03.30 13:13